

금호타이어 노사 오늘 다시 만난다

협상 결렬 후 ‘지노위 조정’ 첫 대면
최대 결립돌 인원감축 문제 의견접근
“임금 삭감 한발씩 양보 파국 막아야”

금호타이어 노사가 10일 오후 협상 결렬 이후 처음으로 만난다. 8일 만이다. 노조가 지난 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해 첫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지역 사회는 이 만남이 파업으로 가는 절차적 대면이 아니라 파국을 막는 상생의 자리이기를 바라고 있다.

전남노동위 양성진 조사관은 9일 “금호타이어에 대한 사전 조사를 마

치고 10일 오후 4시30분 노동위 조정 회의실에서 노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조정을 시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계와 노동계에서는 금호타이어 노사간 입장차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사상 초유의 워크아웃 사태에 따른 회사의 위기를 공감하면서 노사 모두 조기 임단협을 통해 자구안을 만들려고 노력한데서 알 수 있다.

또 가장 큰 결립돌이었던 정리하고

문제는 사측이 두 차례 수정안을 내면서 사실상 해결됐다.

남은 과제는 임금 삭감 폭이다. 이 것도 명예퇴직을 통해 그 폭을 줄웠다. 노사간 거리는 ‘기본급 삭감 20% 대 10%, 상여금 200% 삭감 대 100% 반납’이다. 파업으로까지 갈 정도의 극한 대처는 아니라는 것이다.

워크아웃 진행 중이라는 회사의 위기 상태를 감안하면 이 정도의 격차는 양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일 극한 대처 끝에 파업으로 간다면 채권단의 선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사측은 직장 폐쇄로 맞설 것이고, 채권단은 이런 곳에 자금을 지원할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결국 자금난에 허덕이는 금호타이어는 회생이 불가능해 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채권단은 광주공장 폐쇄문가

지 꺼내들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최근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다辱종 소랑생 산체재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광주공장이 과연 존재 가치가 있는지 면밀히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광주공장이 폐쇄된다면 정리하고 가 문제가 아니다. 광주공장 근로자 2천500여명과 협력업체(150여곳) 2천여명, 그 가족들은 같 곳을 잃게 된다.

채권단은 특히 광주공장의 경우 높은 임금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능직 2천여명이 일하는 광주공장은 평균 근속연수가 19.1년에 달해 타 공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다. 국성공장은 14.9년, 평택공장은 6.1년에 불과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지역 매입임대사업자인 문수대하주택 피해자들이 9일 북구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개업자 처벌과 임대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매입임대 피해자 특별법 제정 촉구

보증금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금호, 이대로 해체되나

계열 분리 경영 이어 그룹 모태 금호고속도 매각설

채권단, 아시아나·금호산업·대한통운 매각 가능성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이 금호산업에서 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금호 핵심 계열사의 지배권 확보에 나서면서 노조가 남기업의 상장인 금호그룹이 해체되는 게 아니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일고 있다. 특히 금호그룹 주변에서 그룹의 모태인 금호고속도 매각설이 공공연히 나돌아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금호그룹의 경영권은 지난달 8일 채권단 발표에서 박삼구 명예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박찬구 전 화학부문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을 나눠 맡기로 했다. 나머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경영 형태를 거론하지 않았다.

이후 그룹 주체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PI)들이 대우건설 풋 мя운을 해결 방안에 합의해 금호산업 구조조정은 탄력을 받고 있다.

문제는 그룹의 주력인 아시아나 항공과 이 회사의 자주회사격인 금호산업의 경영권이 채권단에 맡겨지면서, 지분이 얹힌 여러 계열사들이 줄줄이 채권단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그룹 해체 수순으로 인식되는 대목이다.

시장에서는 채권단이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대한통운으로 이어지는 핵심 계열사 라인을 폐기자로 관리하면서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을 짐작하고 있다.

실제 그룹 주변에서는 금호산업 고속사업부의 우선 매각설이 나돌고 있다.

금호그룹 측이 “불필요한 얘기들이 여과 없이 나오는 데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민들은 지난해 지역 건설사, 조선사의 잇단 퇴출에 이어 노조기업의 상장인 금호

그룹 마저 해체 운명에 놓이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 한 관계자는 “광주고속의 주역이 깊은 금호그룹은 64년의 역사를 가진 호남의 상징 기업이다”며 “이달말로 예정된 경영상화 양해각서(MOU)에는 계열사 매각이 아닌 회생안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연합뉴스

막걸리도 품질인증

8월 ‘전통주진흥법’ 시행

지난해부터 선종적인 인기를 끌는 막걸리(탁주)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질 좋은 막걸리에는 정부가 인증하는 마크가 부착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막걸리를 구매할 때는 품질인증 제품을 우선으로 사주게 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8월5일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막걸리와 청주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전통주진흥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품질인증제 대상 품목과 표시방법, 인증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류품질인증제는 주류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는 인증마크를 부착하게 된다.

하지만 품질인증을 받은 주류제조업자가 거짓으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은 최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공공임대 6,962가구 … 15개 단지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올해 광주·전남지역에 아파트 8천689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아파트 중 여수죽립, 광주첨단 2단계, 백운1·2 등 8개 사업지구 5천

111세대는 올해 새로 시행되며, 광주 수원 일부와 장성 영천, 영광 도동 등 9개 지구 1천851세대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된다.

아울러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450가구, 미분양 아파트 159가구, 부도 아파트 559가구 등을

사들여 공급하며, 신촌부부와 소년소

녀가장 지원 등을 위한 전세임대도 연말까지 3천500여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주자 택지를 비롯한 공동주택용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 39만9천㎡를 공급하며, 광주선은 균형생활지구와 협체 단지 조성사업이 전쟁중인 첨단 2단계 산업용지도 연내 공급된다.

이와 함께 올해 새로 착수하는 효천2지구 등 모두 15개 사업지구에서 모두 67만9천㎡의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건설사 구조조정 내달 본격화

채권은행 신용위험 평가 퇴출 여부 결정

증권 건설업체인 성원건설이 사실상 ‘퇴출’ 판정을 받음에 따라 건설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채권은행은 문제가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즉각 신용위험 평가를 해 퇴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에 따르면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가 시작되는 4월부터 건설업종 구조조정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기 신용위험평가 전이라도 문제가 생긴 건설업체는 주 채권은행 주도로 수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전반적인 경기회복에도 건설업종은 침체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 올해는 C, D 등급으로 분류되는 건설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처음 건설업체인 성원건설이 사실상 ‘퇴출’ 판정을 받음에 따라 건설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채권은행은 문제가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즉각 신용위험 평가를 해 퇴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작년 초 채권은행은 시공능력 100위 이내 9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11개사를 C(워크아웃)로 1개사를 D로 분류했다.

전반적인 경기회복에도 건설업종은 침체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 올해는 C, D 등급으로 분류되는

건설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중企 자금 사정

2분기도 어려워

광주상의 150곳 조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을 2·4분기 자금사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9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내 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0년 2·4분기 기업 자금사정지수’(FBSI=기준치 100)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은 119로 전 분기(100)보다 크게 개선됐지만, 중소기업은 95로 기준치를 밀물었다.

전체적으로 2분기 FBSI는 97로 지난 분기(91)보다 6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밀물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휴 011-602-2532
(광주문화 신관점점, 대인동 소방서간판)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휴 011-609-5221
(상무지구 이바동 김자경 1층)

사원 모집

당사는 부동산 중개, 분양, 경·공매 개발 전문회사로서
사세 확장에 따라 친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인원	지원자격	비고
경리	여 0명	* 초보자 및 경험자	월급
개발	남,여 0명	* 관련 전공과 학 이수자 * 유 경험자	기본급+수당
아파트	여 00명	* 유 경험자	여 실장
토지	남,여 00명	* 초보자 및 경험자	
상가	남,여 00명	* 초보자 및 경험자	분양 및 중개
빌딩	남,여 00명	* 초보자 및 경험자 및 회사 관리업무 경험자 우대	전직금융기관 긴부
첨단지구	37억원	3,300만원	85억원
동립지구	7억원	1,700만원	32억원
상무지구	100억원	5,000만원	200억원
상무지구	26억	6,500만원	100억원
첨단지구	4억	1700만원	28억원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으세요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 아무거나 전화 주십시오★

(유)코리아랜드
대표전화 959-1033, 010-7723-1033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1483번지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벽화사화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 리스트 / 번호사 무료법률상담 / 최고수익률 / 새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질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 후원합니다.